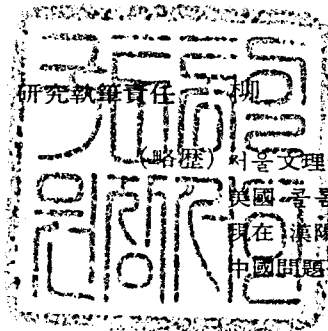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査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収録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周边勢力 調査研究

# 韓半島 平和定着에 대한 中蘇의 作用 變數



研究執筆責任 柳 世 熙

(略歴) 서울文理大 政治学科 및 同大學院卒業 (1965)

英國 哥倫비아 大學校 政治學博士 (1974)

現在 漢陽大學校 法政大學副教授 겸 同大學附設  
中國問題研究所長

刊行責任 朴 鏞 德 (調査研究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調査研究室



## 目 次

一. 序 論	3
二. 中・蘇의 对韓半島政策의 決定因子 및 變數	6
三. 中・蘇의 作用變數와 韓半島 平和政策問題	43
四. 可變性이 높은 作用變數	50
五. 結 論	53
註	57



## 一. 序 論

本研究의 目的은 韓半島에 있어서 平和定着에 作用을 미칠 中共과 蘇聯側의 要因을 糾明하기 위한 것이다. 卽, 韓半島에 關聯된 諸般問題 및 앞으로의 狀況發展은 韓半島에 대한 中共과 蘇聯의 態度에 따라 重要的 影響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이와같은 中共과 蘇聯의 態度를 決定짓는 主要 變數들(Variables)을 分析 綜合함으로써 中·蘇의 對韓半島政策의 內容을 可及的 正確히 理解하고, 앞으로에 있어서 이 政策들의 趨勢 및 變化에 對備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限 中·蘇의 對韓半島政策決定에 作用하는 變數들에 影響을 줌으로써 우리가 願하여 마지않는 韓半島에 있어서의 平和定着을 誘導確保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韓半島의 平和定着이란 南北이라는 相異한 體制間에 있어서 어느 一方이 他方의 存立을 威脅하는 敵對行爲, 다시 말해서 南北間의 全面戰爭이나, 이와같은 事態를 誘發할 수 있는 緊張造成을 払去하는 狀態를 意味한다. <sup>1)</sup> 이는 곧 一次的으로는 두개의 體制에 대한 認定에 따른 상당한 期間에 걸친 現狀固定化요 二次的으로는 平和의 手段에 의한 漸進的인 南北統一의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韓半島의 平和定着에 作用을 할 中共과 蘇聯의 變數들을 推出하기 위해서는 中·蘇의 對韓半島政策의 內容을 決定하는 要因들에 대한 全般的인 檢討부터 始作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中·

蘇의 對韓半島政策은 平和定着에 대하여 肯定的要素(現狀維持 乃至 現狀固定化를 推進하는 要因)와 否定的인 要素(現狀破棄 乃至 急激한 變化를 推進할 要素)로 兩分할 수 있는데 이와같은 要素들의 內容 및 程度는 獨立固定的인 것이 아니라 諸要素間의 相互作用에 의하여 可變的으로 決定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本稿에서는 우선 中共과 蘇聯의 對韓半島政策을 決定하는 主要因子들을 內的因子들(Internal factors)과 外的因子들(External factors)로 나누어 檢討함으로써 中共과 蘇聯의 對韓半島政策의 一般內容을 糾明하고, 그 다음에 各 主要因子(factors)에 作用하는 變數들(variables)을 抽出한 뒤에 이 變數들을 韓半島平和定着에 肯定的인 것과 否定的인 것으로 分類함으로써 短期的이나 앞으로의 中共과 蘇聯의 對韓半島政策을 展望하고, 그 다음에는 이들 變數들을 比較的 固定的인 것과 可變性이 높은 것으로 兩分하여 可變性이 높은 變數들을 우리들로서 如何히 韓半島平和定着에 有利한 方向으로 誘導할 수 있겠는가에 焦點을 맞추기로 한다.

이와같은 研究가 結果를 크게 맺기 위하여는 우선 中共과 蘇聯의 對外政策 乃至 對韓半島政策形成에 作用하는 諸因子 및 變數들이 빠짐없이 나열되어야 하며, 나열된 因子 및 變數들은 正確히 測定되어 그 重要度(作用度)에 따라 優先順位가 決定되어야 한다.

測定에 있어서는 可及的 物量的 方法에 의하여만 說得力이 있음은 勿論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作業은 情報 및 資料가 크게 制限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物量的測定이 전혀 不可能하기 때문에

(例컨대, 個人的 指導力이나 理念이 차지하는 比重과 같은것) 筆者의 能力을 필선 上廻하는 것이다. 거기다가 M. Brecher 등이 適切히 指摘하고 있는 바와같이 一國의 對外政策은 相對方의 對外政策에 크게 影響을 입을 뿐만 아니라 相對方의 動機나 意圖를 여하히 解釋하느냐 하는 「周圍에 대한 認知」라는 心理的環境 (psychological environment) 의 問題로 말미암아 더욱 複雜하게 되는 것이다. 2)

따라서 本研究은 그 最善의 形態에 있어서 극히 皮상적이고 거치른 分析을 벗어나지 못함을 미리 밝혀 두는 바이다.

中·蘇의 對韓半島政策의 因子 및 變數選定에 있어서 基本을 이루는 概念的 틀 (conceptual framework) 은 G.T. Allison 이 適切하게 要約한 세가지 모형<sup>3)</sup> 을 混合한 것이 되겠다. 어느 特定의 모형을 使用치 않는 理由는 題目自体가 워낙 巨視的 分析을 要求하는 데다가 많은 部門에 있어서 活用할 資料가 전혀 欠乏되어 있거나 不完全하거나 信憑性이 欠如되어 있기 때문이다.

## 二. 中·蘇의 對韓半島政策의 決定因子 (factors) 및 變數 (variables)

中共과 蘇聯의 對韓半島政策決定에 作用하는 主要因子는 內的因子 (Internal factors)와 外的因子 (External factors)로 兩分할 수 있는바, 內的因子들은 다시 ① 理念的要素 ② 軍事的力量 ③ 經濟的力量 ④ 權力構造로 크게 나눌 수 있고, 外的因子로는 ① 美國의 對外政策 ② 日本의 態度 ③ 中·蘇關係 ④ 北韓의 態度 ⑤ 歐洲와의 關係 ⑥ 後進國과의 關係 ⑦ 共產國과의 關係를 들 수 있다. 이와같은 因子들은 各已 獨立되어 있다가 보다는 相互關聯되어 있다. 大體로 內的因子들 中에서 理念的 要素는 中共과 蘇聯의 對外政策의 目標요 名分에, 軍事的力量과 經濟的力量은 對外政策 推進能力에, 政治構造는 對外政策決定過程 및 決定行態에 直結된다고 볼 수 있고 外的因子들은 主로 對外政策遂行을 위한 戰略에 影響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諸因子는 各已 그 內容을 形成하는 下部要因 또는 變數들을 가진다. 그러면 지금부터 各 因子들에 作用하는 變數의 內容이 무엇인가를 檢討함으로써 中共과 蘇聯의 對韓半島政策의 性格과 戰略을 究明코자 한다.



## 1) 理念的 要索

中共과 蘇聯은 다같이 共產主義를 標榜하고 있는 만큼 世界의 프롤레타리아 革命完遂가 對外政策의 基本理念 또는 基本目標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卽, 둘다 맑시즘-레닌이즘의 汎世界的 實踐이라는 點에서 同一하다. 그러나 이것은 原則論이고 實際面에서 맑시즘-레닌이즘 그 自体에 대한 解脫과 實踐方案에 있어서 中共과 蘇聯은 커다란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는 主題가 다르기 때문에 中共式 맑시즘-레닌이즘과 蘇聯式 맑시즘-레닌이즘의 差異點을 자세히 言及하는 것을 略하겠지만 大體로 兩者間의 差異는 革命에 있어서의 農民의 役割, 社會主義體制間의 矛盾問題, 資本主義體制와의 共存問題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4) 다같이 共產主義를 내걸면서도 對立되는 主原因은 共產革命이 일어나기까지의 歷史的背景, 環境 그리고 傳統의 差異와 곧이어 檢討하게 될 다른 內的因子들 間의 差異와 密接한 關聯을 갖기 때문임은 勿論이지만 또하나의 主要原因은 맑시즘-레닌이즘 그 自体의 屬性에서도 惹起되는 것이다. 本研究의 文脈에서 약간 離脫하는 感이 없지 않으나 中·蘇의 理念論爭은 中·蘇의 對外政策에 계속 重要한 影響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맑시즘-레닌이즘 그 自体가 共產國內部에 있어서 分裂을 招來할 수 밖에 없는 要素에 대해서는 간단히 言及할 必要性을 느낀다.

맑시즘-레닌이즘은 共產主義者들은 客觀的인 真理로 認定될 수 있으리 만큼 가장 科學的이고 明確한 理念이라고 主張하고 있지만

는 실제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式으로 多様하게 解釋될 要素를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맑시즘 - 레닌이즘의 非一貫性 乃至 모호성은 다음과 같은 原因에서 惹起된다.

첫째는 正統的 맑시즘의 誤謬이다. 正統的 맑시즘의 切명적 弱點은 共產主義革命은 資本主義가 高度로 發達된 先進國에서 일어나리라고 본 點에 있다. 맑스의 이와같은 予測은 단순히 사소한 하나의 予測이 아니라 그의 理論의 綜合的 結論에 該當하는 主張이므로 이것은 곧 이러한 結論이 導出되게 된 根拠, 다시 말해서 그의 理論의 基底를 이루는 唯物論的 弁證法 自体에 커다란 誤謬가 있음을 自明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다.

실제로 이 點으로 말미암아 後進國의 共產主義者間에 無數한 論爭과 懷疑를 불러일으켜 왔으며 理論과 現實의 隔差는 共產主義者間에 混亂과 對立을 發生시키게 되는 것이다. 古典的 맑시즘의 이와같은 理論的 誤謬에도 不拘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어필하는 理由는 맑시즘의 理想主義的 要素, 다시 말하여 共產主義革命이 完成되는 共產社會에서는 모든 人間은 完全히 平等하게 되고 一切의 抑壓과 貧困으로부터 解放된다는 主張과 그리고 이와같은 理想的 社會는 歷史發展의 法則에 의하여 必然的으로 오게 된 있다는 樂觀的 때문인 것 같다. 바로 이 點에서 共產主義는 共產主義者들이 主張하는 바와같은 科學的 理念이 아니라 一種의 宗教로 看做될 수 있다고 하는 主張은 說得力을 가진다.

둘째로 맑시즘과 레닌이즘과의 같등이다. 위에서 指摘한 正統的

맑시즘의 虛點을 補完하기 위하여 나타난 것이 레닌이즘이라 말할 수 있는데 兩者間에는 共產主義者들은 否定하고 나서나 根本적으로 對立되는 主要要素가 尠하고 있다. 卽, 革命的 時期와 關聯하여 맑스는 自然發生論을 부각시킨 反面에 레닌은 誘導論을, 革命的 原動力에 대하여 맑스는 經濟決定論을 主張한 反面에 레닌은 政治優位論을, 人間本性에 대한 信念에 있어서 맑스는 大體로 性善說에 치우침으로써 樂觀論을 表明한 反面에 레닌은 鬭爭을 지나치게 強調한 나머지 性惡說的 悲觀論의 立場을 取한 것등이 바로 그것이다. 5)

兩者間의 이와같은 對立은 共產主義者間에 混亂과 對立을 惹起시킴은 地극히 當然한 것이다. 卽, 모두다 맑시즘-레닌이즘을 信奉한다 하더라도 어느 要素를 더욱 強調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狀況을 놓고도 전혀 判이한 解釋을 하는 立場에 설수 있는 것이다.

大體적으로 맑시즘이 理想主義的 色彩를 強力히 풍기고 있다고 한다면 레닌이즘은 現實主義的 見地를 採択하고 있는바 바로 이 점에서 現代 共產主義는 大體로 名分에 있어서는 맑시즘的 立場을, 그리고 方法論에 있어서는 레닌主義의 立場을 따르고 있다고 보여지며 또한 바로 이 점에서 맑시즘은 共產主義者들의 名目上 理念(Nominal Ideology)이 되며 레닌이즘은 實質的 理念(Practical Ideology)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크게 보아서는 共產國家間에 그리고 작게로는 共產主義者間에 意見의 相馳와 對立을 가져오는 맑시즘-레닌이즘의 세번째 理由는

레닌이즘의 코에 결면 코결이 귀에 결면 귀결이式의 恣橫性(Arbitrariness)에 起因한다. 筆者는 바로 위에서 레닌이즘을 現代 共產主義의 實質的 理念이라고 規定한바 이것은 大部分의 指導級의 共產主義者들이 맑시즘보다는 레닌이즘을 훨씬 더 強調하고 있는 共產主義運動의 實際에 대한 觀察에서 내려진 結論이다.

그러면 레닌이즘의 要諦는 무엇인가?

레닌이즘은 理念이라기 보다는 戰略에 直結된 있으며 그 中心內容은 結果에 의하여 모든 手段은 正當化될 수 있다는 것이다.

即, 이기는 것이 正義라는 것이다. 이와같은 극단의 現實主義的 立場은 往往 너무나 方法 및 手段을 強調한 나머지 目標自体가 輕視되는 傾向을 나타내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重要한 事實은 어떠한 方法이 가장 科學的인 方法이며 採択된 이 方法이 과연 가장 科學的인 것인지를 누가 判斷하느냐 하는 點에 있다. 레닌 自身도 勝利를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敵과 妥協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敵을 가차없이 攻擧하라고만 했지 數많은 경우를 일일이 明示할 수 없었던 것이다. 結局 이 點에서 共產主義者間에 相對方을 敎條主義者, 修正主義者, 小 부르조아의 感傷主義者, 極左的 冒險主義者 또는 小兒病的 英雄主義者로 相互不信 또는 非難하게 되는 契機가 마련되는 것이다. 남들로부터 非難과 攻擧를 받지 않는 最善의 方法은 自身이 攻擧를 取하여 헤게모니를 掌握하거나 獨裁者로 君臨하는 것 밖에 別도리가 없다. 中·蘇關係를 바로 自体防禦를 위한 共產陣營內의 헤게모니 爭奪戰이라고 看做할 수

있는 理由가 바로 이 点이다. 그러면 다시 本討論에 되돌아가서 中共과 蘇聯의 理念的要素에 作用하는 變數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 보도록 하자. 理念的要素를 決定하는 主要變數는 大略 다음의 세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

가. 紅 (Red) 과 專 (Expert) 의 問題

나. 國民들의 一般분위기 (Mood)

다. 民族主義

紅과 專의 問題는 大體로 理念과 實際의 對立 또는 위에서 말한 名目上理念과 實質上의 理念間의 갈등에서 惹起된다고 보여진다.

中共의 對內政治 및 路線에 있어서 紅과 專의 問題가 重要的 作用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이며 全體的인 政治類型으로 볼때 中共은 紅의 要素를 強調하고 있고 蘇聯은 專의 要素가 中共보다 월등히 부각되 왔음은 事實이다. 그렇다고 蘇聯에 있어서 紅과 專의 問題가 解消된것은 아니다. 한 研究에 의한 蘇聯에 있어서의 紅과 專의 對立 및 그 主要 이슈는 다음과 같다.

紅 (左派)	專 (右派)
目標指向的 (理想主義的)	現實主義的
樂觀主義的	悲觀主義的
黨 性	合理性
變 動	安 定
一元性	多元性

政治優位

重工業

突破的 經濟發展

中央統制的 經濟

文化革命

中央執權

暴力

三階級聯合戰略

國際的鬭爭의 不可避性

經濟優位

消費品

均衡的 經濟發展

市場經濟

傳統性의 維持

地方分權 (地方自治)

漸進主義

四階級聯合戰略

國際的鬭爭의 可避性<sup>6)</sup>

紅과 專의 對立으로 因한 中共과 蘇聯의 路線의 左선회 右선회

의 時期的 分布는 다음과 같다.

中 共

1949~1954	政權樹立期	右선회 (專)
1955~1956	執産化期	左선회 (紅)
1956~1957	白花運動期	右선회 (專)
1958~1960	大躍進運動期	左선회 (紅)
1960~1965	社会安定追求期	右선회 (專)
1965~1969	文化革命期	左선회 (紅)
1970~1972	正常回復期	右선회 (專)
1973~1974	批林批孔運動	左선회 (紅)
1975 第4次 人民代表大會以後	政治安定追求	右선회 (專)
1976 周恩來死亡~毛沢東死亡	反走資派運動	左선회 (紅)
1976.10~ 現在	華國鋒體制	右선회 (專)

蘇 聯

1921~1927	革命수습 및 安定追求期	右선회(專)
1928~1938	一人独裁確立	左선회(紅)
1939~1942	对独接近 및 美·英·蘇 밀월기	右선회(專)
1946~1955	東西冷戰과 鉄의 장막기	左선회(紅)
1956~1963	스타린格下와 平和共存推進期	右선회(專)
1967~1970	브레즈네프体制 確立期	左선회(紅)
1970~	東西和解推進期	右선회(專)

이와같은 專과 紅의 問題는 위에 言及할 政治構造 및 政治行德라는 因子에 많은 影響을 주며 특히 政權의 安定性, 最高指導者의 役割, 그리고 繼承의 問題라는 變數에 크게 作用한다.

다음에 國民들의 분위기 역시 中共과 蘇聯의 理念的要素라는 因子에 作用하는 것이다. 勿論 中共이나 蘇聯은 西歐社會에 比較할 때 지극히 閉鎖的인 社會이므로 組織的인 輿論이 밑에서부터 自發的으로 形成되어 政府가 追求하는 目標나 政策決定에 크게 壓力을 준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指導層으로서의 國民들 間의 분위기를 도외시 할 수는 없다. 卽, 國際主義보다는 民族主義에 이끌리는 國民들의 感情이라든지, 世界 프롤레타리아 階級の 共同利益보다는 自國의 國家利益이라든지 對立보다는 平和, 變動보다는 安定을 바라는 것, 勞動賃金の 引上을 바라는 것같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 2) 軍事的 力量

軍事的 力量은 經濟的 力量과 아울러 對外政策推進能力에 該當하므로 對外政策의 性格을 決定하는데 크게 作用한다. 특히 對外政策의 一次的인 目標은 어느 國家를 막론하고 國家의 安保維持에 있기 때문에 軍事的 力量이 中共과 蘇聯의 對外政策의 內容을 決定하는 主要因子가 됨은 當然하다. 中共과 蘇聯의 軍事的 力量을 決定하는 變數들은 다음과 같다.

가. 地理, 地形, 氣候의 條件

나. 軍 備

다. 産業化의 程度

라. 天然資源

마. 人 口

以上の 諸變數는 經濟的 力量을 決定하는 主要變數도 된다. 地理, 地形, 氣候의 條件이 中共 및 蘇聯의 對外政策 및 그 戰略에 미치는 影響은 至大하다. 傳統的으로 蘇聯은 極東進出을 위한 不凍港을 찾는 努力을 기울여 왔으며 이 점에서 韓半島의 事態는 蘇聯에게는 重要한 比重을 갖는다. 한편 蘇聯의 戰略的인 位置는 中共과 달라 西歐에 隣接해 있으므로 中共보다는 西歐의 動向에 直接的으로 關心을 안둘 수 없으며 이 점에서 蘇聯의 對外政策에 있어서 韓半島政策이 차지하는 比重과 그 內容은 달라지게 된다.

中·蘇紛爭以後 韓半島가 中·蘇의 對外政策에서 갖는 比重은 彼



此間의 安保問題와 關聯하여 더욱 增大되었다고 思慮된다. 即, 中·蘇紛爭以前에는 韓半島가 美國 및 日本과의 對立에 있어서의 전초지대라는 意味만을 주로 가졌었는데 中·蘇對立이 激化되면서 韓半島는 北韓의 向方에 따라 中共과 蘇聯의 安保에 重要한 影響을 미치는 새로운 意味를 지니게 된 것이다.

軍備, 産業化의 程度, 天然資源面에서 中共은 美國과 蘇聯에 월등히 뒤진다. 7) 특히 軍備面에서 보면 中共과 蘇聯 共히 國防予算을 公表하지 않아 자세한 內容을 알수는 없으나 西方側의 推定에 의하면 中共은 年間 100億弗을 國防에 使用하고 있는데 8) 이것은 蘇聯의 年間 國防費 約 900億弗에 비하면 9分之1밖에 該當이 안 된다. 9) 그러나 中共의 1人當 國民所得이 140弗 未滿일 것이라는 點 10)을 감안할때 每年 100億弗을 國防費에 使用한다는 것은 中共으로서는 一大 出血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이 點에서 中共은 美國과 蘇聯에 대해서 守勢的 立場에 놓인다.

軍事的力量面에서 中共이 美國이나 蘇聯에 대하여 利點을 가지고 있는 變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人口이다. 現役兵力의 總數에 있어서 中共은 約 315萬名을 確保함으로써 美國이나 蘇聯보다 약간 많은 數字를 나타내고 있으나 民兵組織 3,000萬名과 有事時 2億名以上을 戰鬪에 動員할 수 있다는 能力은 他的 追從을 不許하는 것이다. 軍備面 특히 最新武器所有에 있어서의 劣勢와 兵力動員能力에 있어서의 優勢는 곧 中共의 軍事戰略의 性格을 規定지어 준다. 即, 「人民戰爭」의 概念이 바로 그것이다. 人民戰

爭의 概念을 가장 明確히 나타낸 것으로는 1965年의 「人民戰爭에 關하여」라는 林彪의 演說을 들수 있는데 林彪가 비록 毛沢東 除去陰謀로 말미암아 修正主義의 代表的存在로 現在 糾彈의 對象이 되고는 있으나 毛沢東의 軍事思想에 關한 限 林彪의 上記演說처럼 그 正鵠을 明確히 理解한 例도 드물다 하겠다. 11) 即, 그 主要内容은 敵과 싸움에 있어서 中共은 먼저 攻襲을 하는 것이 아니라 敵으로 하여금 오게 만든 다음 게릴라戰法에 의한 人民戰爭으로 敵을 敗退시킬 수 있다는 것이며 또한 美國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감히 中共에 挑戰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美帝는 종이 호랑이에 不過하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林彪의 主張은 結局 먼저 攻襲하기에는 中共의 軍備가 美國과 蘇聯에 比하여 너무나 劣勢에 있고 그러나 人口의 數的優勢 때문에 防禦는 可能하다고 본 點에서 나온 것이다.

最近 中共을 訪問하여 中共의 軍事施設을 視察한 蘇레진저 前美國 國防長官은 遊擊基地를 위주로 하는 中共의 人民戰爭戰略은 蘇聯에 對하여 充分한 牽制力(deterrence power)이 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根本적으로 中共을 不安하게 만드는 것은 美國과 蘇聯이 가지고 있는 核武器의 可恐할 만한 威脅인 것이다. 따라서 은밀히 核武器開發을 계속 推進해 온바 1964年 10月에 核實驗에 成功하고 1967年에 「메가톤」級 水爆實驗에 成功함을 契機로 核彈頭의 小型化와 核運搬體 開發에 傾注하여 왔다.

今年 11月 17日에 行한 第19次 大氣圈 核實驗은 史上最大의

것이었으며 두달前 18次의 것의 約 20倍나 된다. 現在 中共은  
 數百個의 核爆彈을 所有하고 있고(1972年2月 現在 美國은 中共  
 이 200個以內의 核彈을 蓄積하고 있는 것으로 推定하였음) <sup>12)</sup>  
 1972年 現在로 東南亞全域과 이집트의 카이로 그리고 蘇聯의 모  
 스크바에 到達할 수 있는, 即, 10.00~2500마일의 射程距離를 가진  
 中距離彈導彈을 保有하게 되었다. <sup>13)</sup> 中共에 있어서 이와같은 核武  
 器 및 그 運搬體의 開發은 美國이나 蘇聯의 그것에 比할때 問題  
 가 되지는 않지만 中共이 中距離彈導 미사일을 確保하고 있다는  
 事實은 적어도 蘇聯의 對中共 核威脅에 關한 限 상당한 牽制力  
 (deterrence power)을 갖게 된것이라고 보아야 될것이다. 또  
 한 同미사일이 방금 위에서 言及한 것처럼 核武器를 가지고 있지  
 않는 日本과 東南亞諸國에 對한 中共의 對外政策推進에도 상당한  
 影響을 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中共의 誘導彈開  
 發은 1972年以後 상당히 鈍化된 感이 없지 않아 1975年 2月  
 술레진저 國防長官이 議會에 提出한 國防報告書에 의하면 中共이  
 地下發射台에 의한 大陸間彈道誘導彈으로 美國本土를 攻擧할 수 있  
 는 能力을 가지려면 1980年度 中間期에나 可能하다는 것이다. <sup>14)</sup>  
 中共이 蘇聯에 대해서는 약간이나마 核攻擧의 牽制力을 갖고 있  
 는 反面에 美國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事實은 中共으로서  
 美國과의 德망뜨는 계속 推進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의 原因이  
 되는 것 같다.

中共이 이처럼 核武器 및 中距離 「베저」 爆擊機, 「비글」 輕爆機

등 新銳武器와 戰略空軍防衛計劃의 推進에 있어서 鈍化現狀을 보이게 되는 原因은 아직까지 科學技術이 美·蘇에 훨씬 뒤떨어져 있음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큰 原因은 予算不足에 있는 것이 틀림이 없어 보인다. 即, 위에서 指摘한 年間 100億弗의 國防費 가운데 7割이 300萬이 넘는 軍人들의 俸給, 食代 및 兵營費로 나가기 때문에 나머지 3割로 軍備 그것도 最新裝備의 開發 및 製作에 充當해야 되는 것이다. 15)

한편 蘇聯은 그 軍事의力量에 있어서 「美國과 世界 다른地域에 있는 상당수의 軍事標的을 攻擊하고도 계속 매우 強大한 힘을 保有할 수 있을 정도로 充分한」 戰略 核能力을 保有하고 있다. 即, 「蘇聯은 兩面戰爭을 치를 軍事力을 가지고 있다. 一즉 유럽에서는 NATO와 對抗해서,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中共이나 美國 또는 그 盟邦에 對抗해서 싸울 수 있는 것이다.」 16)

### 3) 經濟的 力量

中共과 蘇聯의 經濟的 力量을 決定하는 變數들은 위에서 指摘한 軍事의力量을 形成하는 다섯가지의 變數一即, ① 地理, 地形, 氣候의 條件 ② 軍備 ③ 産業化의 程度 ④ 天然資源 ⑤ 人口一以外에 ⑥ 對外貿易에의 依存度를 하나 더 添加할 수 있겠다. 이 중 軍備와 人口라는 變數는 軍事의 力量과 經濟的 力量과의 關係에 있어서 對立되는 作用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即, 軍備의 擴張은 軍事의 能力에는 도움이 되나 經濟的 能力에는 障礙가 되며, 많

은 人口는 軍事的能力에는 有利하나 經濟發展에는 往往 問題點을 惹起하는 傾向이 더욱 많기 때문이다. 한편 보다 높은 軍事的能力이 반드시 經濟的能力의 向上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나 大体로 높은 經濟的 能力은 軍事的 能力의 向上에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보면 中共은 美國이나 蘇聯에 比하여 物質的 對外政策推進能力에 있어서 많은 不利點을 안고 있다.

對外貿易이라는 變數面에서 보면 中共과 蘇聯은 西歐와의 相異한 經濟體制를 採択하고 있는에서 發生하는 國民所得의 概念 및 計算方法의 差異때문에 貿易이 國民總生産高에서 차지하는 比重을 正確히는 알수 없으나 中共의 경우는 1973年에 國民總生産高의 5~6%로 推定되고 있으며<sup>17)</sup> 蘇聯 역시 별로 높지 않은 것으로 看做된다. 이 점에서 中共과 蘇聯의 經濟의 對外依存度는 資本主義體制에 比하여 매우 적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留意할 點은 中共과 蘇聯 共히 對外貿易의 增加率은 國民所得의 增加率보다 最近 계속 上廻하는 傾向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만큼 經濟面에 있어서의 對外依存度가 높아지고 있음을 말한다. 특히 우리가 注意해야 할 點은 對外交易에 있어서 中共은 蘇聯보다 월등히 非共產國家들에 依存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即, 蘇聯의 主要交易對象國은 共產國家들로서, 이들은 蘇聯의 交易量의 三分之二를 차지하며 이와같은 比率은 最近에 이르기까지 別 變動이 없다.<sup>18)</sup>

한편 中共의 主要 交易對象國은 非共產國家, 특히 西方陣營國家들로서, 交易量에서 볼 때 1956年을 基點으로 非共產國家들과의 交

易量이 增加하기 시작하여 1973년에는 全体 中共의 交易量의 8割以上인 非共產國家들과의 交易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9) 即, 中共과 蘇聯의 10大 交易對象國의 順位는 다음과 같다. 20)

\* 中 共 (1973年度)

順位	나라	交易量 (单位: 100 萬弗)	1972年度順位
1	日本	2,201	1
2	美国	876	11
3	香港	796	2
4	西 独	487	4
5	말레지아/싱가폴	460	6
6	캐나다	409	3
7	英国	340	8
8	蘇 聯	272	5
9	루마니아	265	7
10	濠 洲	247	12

米 蘇 聯 ( 1971年度 )

順 位	나	라	交 易 量 ( 单位 : 100 萬 弗 )	1972 年 度 順 位
1	東	独	6,884	1
2	폴	드	5,040	2
3	체	코	4,844	3
4	불	리아	4,138	4
5	항	리아	3,320	5
6	루	니아	1,872	7
7	큐	바	1,782	6
8	日	本	1,466	8
9	西	独	1,334	10
10	이	집트	1,286	9

以上에서 볼때 日本은 中共과 蘇聯에 대하여 主要交易对象국이며 닉슨의 中共訪問以後 美国은 中共에게 있어서 두번째로 重要한 交易国으로 登場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美国은 中共과 蘇聯에 대하여 重要한 穀物提供国일 뿐만 아니라 最近 계속 中共 및 蘇聯과의 交易量은 增加되고 있다.

中共과 蘇聯과의 交易關係는 1959년에 蘇聯의 全体 貿易額의 20%를 차지하였다가 中·蘇關係가 계속 恶化되면서 1970년에는 蘇聯의 全体 貿易額의 0.2%까지 내려갔다. 21) 中共의 對外貿易에 있어서 또한가자 興味있는 것은 中共은 對共產國家 交易에 있어

서는 계속 輸出超過를 維持하는 反面에 對資本主義國과의 交易에 있어서는 주로 輸入超過를 나타내고 있다는 点이다, 即, 1973年度에 中共은 對共產國家交易에 있어서는 2億94萬弗의 黑字를 낸 反面에 對非共產國 交易에서 3億7,000萬弗의 赤字를 내었다. 2)

#### 4) 權力構造

中共과 蘇聯의 對外政策 乃至 對韓半島政策에 作用하는 마지막 內的인 主要因子는 權力構造이다. 왜냐하면 政策은 政策엘리트들에 의하여 採択되며 政策엘리트들은 權力構造內에 位置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惹起되는 問題들은 重要한 對外政策이 決定되는 場所가 어디냐, 다시 말해서 主要對外政策決定에 있어서의 黨, 行政府, 軍의 役割과 특히 最高指導者의 役割에 關聯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權力構造라는 因子에 關聯된 變數들은 다음과 같다.

가. 對外政策決定에 있어서 黨-官僚-軍關係

나. 最高指導者의 리더쉽 및 政權의 安定性

다. 最高指導者의 繼承問題

對外政策決定에 있어서 黨-官僚-軍과의 關係는 權力의 所在가 어디냐를 특히 組織面에서 볼 때 重要한 것이다. 元來 맑시즘-레닌이즘의 正統的 立場에서는, 黨이 官僚와 軍을 掌握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와같은 論議가 成立할 수 없으나 實際에 있어서는 理論과 많은 差異를 나타내기 때문에 歐美의 對外政策決定에서 抬頭하는 「組織體過程모델(Organizational process model)」<sup>23)</sup>의 適



用可能性을 檢討해 볼 必要가 있다. 實際로 中共에 있어서 文化 革命期에 黨이 政治에 깊숙이 關聯하여 毛沢東의 權力確保에 決定 的인 役割을 한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勿論 이것은 中共軍이 歐美의 軍과 같이 完全히 職業的 組織체로서의 性格을 가지고 있 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紙面關係上 黨-軍-官僚의 關係가 對外政策에 여하히 作用하는가를 具體的으로 說明할 수는 없 으나 筆者의 檢討에 의하면 中共과 蘇聯의 差異點 및 類似點은 大略 다음과 같이 觀望할 수 있다.

a. 中共과 蘇聯 共히 中心權力の 所在은 黨이라는 點에는 異議가 없으나 中共의 경우는 蘇聯의 경우보다 官僚 및 軍에 대한 「恣義的」 或은 積極的인 黨의 支配가 強調되는 反面에 蘇聯의 경우는 黨이 官僚와 軍을 달래는 消極的인 支配의 形態를 띠고 있다.

b. 軍과 官僚의 比重에 있어서 中共은 行政府보다는 軍을, 蘇聯은 軍보다는 行政府를 우선시하는 傾向이 있다.<sup>24)</sup>

大體로 軍과 官僚가 갖는 專門分野 或은 技術的인 側面때문에 어느 程度 自律性을 가지며 따라서 黨의 完全한 支配란 想定키 어렵다. 實際로 紅과 專의 對立은 여기서도 派生하는 것이다. 그러면 언제 軍과 官僚는 黨의 優位性에 挑戰하는가? 그것은 두 말할 것도 없이 黨의 核心을 이루는 指導層이 弱化될때 惹起하며 이 點에서 最高指導者의 리더쉽 및 政權의 安定性이 對外政策決定에 있어서 主要變數가 되는 것이다.

中共과 蘇聯의 政治에 있어서 最高指導者の 役割, 다시 말해서 個人에 대한 權力의 集中程度를 把握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毛沢東 個人이 가졌던 카리스마의인 要素는 브레즈네프보다는 월등하였다는 점은 의심할 나위가 없을 것 같다. 實際로 그동안 中共의 政治나 이베올로기에 있어서 毛라는 個人的인 要素는 그것을 除外하고는 中共의 政治行憲를 理解하기 어려운 程度였으며 毛가 死亡한 現在에 있어서도 앞으로 상당한 期間동안 毛沢東 思想 및 其他 毛가 남긴 政治的 遺産은 中共의 政治的 스타일 및 對外政策에 影響을 줄것이다.

毛가 죽은지 한달만에 江青등 4人의 文革派 指導部가 逮捕됨으로써 穩健派의 支援을 받는 華國鋒體制가 일단은 形成되었다. 華國鋒體制는 그 形成過程에 있어서 中共 指導部內의 合意에 의한 것이 아니라 一種의 宮庭 쿠데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現在 中共은 심각한 리더십의 危機에 處해 있다. 即, 비록 지난 11月 30日부터 3日間 열린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 第4期 3次 會議에서 過激派 江青등 「四人幫」의 숙청을 確認하고 華의 黨主席으로의 繼承을 承認하였다고는 하나 江西, 河南, 湖北, 福建, 上海 等地에서의 騷擾, 第10次 黨中央委員會 第3期 全体會議의 開催가 遲延되고 있는 事實, 空席으로 있는 黨 및 行政府 要職에 대한 公式의 人選이 遲延되고 있는 事實등은 華體제의 構築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華가 處해 있는 어려움은 여하히 그동안 中共社會에 浸透된 毛沢東思想의 影響

과 또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修正을 要求하는 穩健派의 壓力을 適切히 配合할 수 있는가 하는 問題이다. 實際로 文革以後 지난 10年동안 形成된 文革派의 勢力은 一朝에 払式될 수는 없는 것이며 더군다나 이들의 理念的 바탕은 穩健派보다는 毛思想에 더욱 密着되 있는 것이다. 따라서 華가 取할 수 있는 길이란 그의 權力體制에 밑바탕이 되고 있는 軍部로부터의 支持를 계속 維持하며 地方黨 및 民兵隊組織에 상당한 勢力을 形成하고 있는 文革派들을 회유하는 것이다.

華가 江青等 소위 「四人幫」에 대한 숙청에 있어서 그들의 過激路線에 대해서는 전혀 批判이나 言及을 避하고 오직 그들의 過去의 行動이 방자하였다. 橫暴가 많았다. 不法으로 黨權을 차지하려고 하였다는 等等으로 個人的인 道德的인 面에서만 非難하는 理由는 그들의 過激路線에 대한 批判은 어느 面에서는 곧 毛路線에 대한 否認이 되기 때문에 文革勢力, 특히 젊은 層으로 부대의 反撥을 惹起시킬 危險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과연 華가 앞으로 이와같은 難題를 如何히 解決할런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比較的 순조롭게 自身の 體制를 形成한다 하더라도 이에 소요되는 時間은 상당하리라 予測된다. 이처럼 內部的으로 어려움에 屢해 있는 中共의 새로운 體制는 그 對外政策에 있어서는 새로운 方向轉換을 할 수 있는 여지를 大体로 喪失하게 된다. 卽, 國內問題解決에 급급한 나머지 對外面에 있어서 새로운 골치거리의 기피할것은 當然한 것이다.

우리는 그 实例를 内部的 混亂이 극심했었던 文革期間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sup>25)</sup> 即, 文革期間中 外交官僚들에 의한 既存政策에 의한 外交活動의 유지라는 點에서만 그치고 刮目할만한 政策의 變化는 없었던 것이다.

한편 長期的으로 볼 때 毛가 없는 中共의 體制는 結局은 過去보다는 實用主義的인 傾向으로 나갈 것이다. 이것은 곧 美國과의 關係改善은 勿論 심지어 蘇聯과도 接觸의 增大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原則論이고 여하간 現在로서 볼 때 中共의 對外政策의 變化는 누구에 의하던 새로운 權力體制가 確立되는 것과 密接한 關係가 있기 때문에 體制의 性格은 勿論 이에 次要되는 時間은 主要한 下部變數가 될 것이다.

蘇聯의 경우에는 中共보다는 훨씬 體制自体가 制度化되어 있어서 繼承에 따른 國內政治의 不安定은 予測키 어렵다. 다만 브레즈네프 自身도 그랬던 것처럼 새로 蘇聯의 政權을 繼承하는 者는 政治權力을 굳히기 위하여 內的團結을 強調하는 나머지 公式的으로는 正統的 馬시즘-레닌이즘의 固守 등과 같은 強硬論을 펼 可能性이 많다.<sup>26)</sup> 이 경우 從前까지의 對美 또는 對西歐와의 接觸은 再檢討될 可能性이 높아지며 士氣面에서 北韓은 도움을 받을 것이다.

以上으로 中·蘇의 內的因子들에 대한 變數들을 간단히 考察하였거니와 지금부터는 中·蘇 對外政策에 作用할 外的因子들의 變數에 대해서 討論하기로 한다.

앞에서도 말하였거니와 中·蘇에 作用하는 外的因子들은 그 自体

내용도 重要하지만 어느 면에서 더욱 重要的 것은 그러한 外的 因子들을 中共과 蘇聯이 과연 어떻게 解釋하느냐 하는 心理的 側面이 問題가 된다. 即, 外的 因子들은 外的 因子들이 形成되는 內的 環境과 逆으로 中共과 蘇聯의 作用 및 態度에 대한 解釋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各 因子들의 變數를 이와같은 側面에서 考察한다는 것은 또하나의 거창한 作業이 됨으로 本研究에서는 위에 말한 中·蘇의 外的 因子들에 대한 解釋이라는 側面을 위주로 檢討하기로 한다.

中·蘇가 對韓半島政策에 作用하는 外的 因子들을 어떻게 解釋하느냐, 좀더 좁혀 中·蘇의 政策決定者들의 外的 因子들에 대한 概念을 正確히 把握하기란 결코 용이치 않으나 大略 그동안의 反應 및 行態面에서 推測하는 도리밖에 없을 것이다.

### 5) 美國의 政策

中·蘇의 對韓半島政策에 대한 外的 因子中 가장 重要的 因子는 美國의 對極東政策이다. 中·蘇의 對韓半島政策에 影響을 미칠 美國의 對極東政策의 變數는 大略 다음과 같다.

가. 韓半島 특히 韓國內의 美軍의 基地가 美國의 世界戰略에서 갖는 比重

나. 韓半島內의 美國의 拠点이 中·蘇關係라는 點에서 中·蘇에 주는 利害得失

다. 美國의 對外政策決定過程에 대한 理解

제일 첫번째의 變數는 美國의 世界戰略에 대한 一般의 解脫과 關聯된다. 即, 美國의 終局的으로 韓半島에서 손을 뗄 것인가, 萬一에 그렇다면 그 時期는 언제쯤이고 어떤 形態가 되겠는가 等等의 美國의 韓半島 拠点確保의 意思의 程度 및 決意의 內容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같은 美國의 意思는 美國의 政治體制가 民主的 政治體制라는 點에서 比較的 重要한 對外政策이 公開的으로 討議되는 만큼 共產體制보다 훨씬 많이 對外的으로 表明됨으로 中共과 蘇聯이 그를 看破하기란 어렵지 않다. 即, 議會의 對政府質疑, 議會에 대한 政府의 報告書, 新聞, 放送 등 言論機關에서의 記事化 및 公開, 選舉를 통한 對外政策의 暴露 및 提議, 各 研究所의 研究發表 등 公開社會가 갖는 屬性으로 因하여 對外政策의 重要한 情報가 中共과 蘇聯에 흘러들어 가게 된다. 그러나 美國으로서는 이와같은 事實이 굳이 美國의 國家利益에 損害가 된다고만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다. 오히려 公開함으로써 輿論을 誘導하고 衆意를 모을 수 있다고 믿으며 敵性國으로부터의 誤解에 의한 反撥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駐韓美軍이 언제까지 駐屯하게 될 것인지에 관해서는 닉슨·周의 上海會議에서 대충 어느정도 相互間에 理解가 이루어졌으리라 믿으나 알수 없는 일이다.

인도지나 事態 以後 韓國이 美國의 世界戰略에서 갖는 比重은 슬레진저 國防長官의 對議會 國防報告書에서 東北亞에 있어서의 主要

樞點(Strong point)으로 強化된 것으로 闡明하고는 있으나 大體로 中共은 美軍이 漸次的으로 언젠가는 韓半島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믿고 있는 것 같다.

위에도 다시 言及하겠지만 美·中 그리고 美·蘇의 태양트는 中·蘇가 相互間的 不信에 의한 安保問題와 直結되어 이루어졌기 때문에 美軍의 駐韓은 蘇聯보다는 中共이 더욱 希望할 共算이 크다고 보여진다. 即, 美軍의 駐韓은 蘇聯艦隊의 極東 및 東南亞 海域進出에 牽制作用을 할뿐만 아니라 日本의 再武裝도 막을 수 있는 契機가 되기 때문이다.

다음에 세번 째의 変數인 美國의 對外政策決定過程에 대한 理解에 있어서 中共과 蘇聯은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即, 中共은 美國의 對外政策決定에 있어서 議會 및 輿論의 役割을 重視하는 反面에 蘇聯은 行政府를 重視하는 것 같다. 美國의 對外政策決定過程에 대한 이와같은 理解의 差異는 中共과 蘇聯 自體의 體制의 差異에서 起因한다고 보여진다. 即, 中共은 아직까지 蘇聯에 비하면 後進性을 면치 못하였기 때문에 大衆動員의 段階에 있으며 이러한 性格은 毛의 大衆路線에서도 볼 수 있다. 中共의 外交의 3大戰略의 하나인 「人民對人民」의 外交도 이것을 反映한 것이고 유엔에 있어서 第3陣營을 動員하여 輿論攻勢를 퍼는 것도 이와 類似點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그리하여 美國 議會指導者와 言論人들의 빈번한 招請을 하게 되는 理由도 여기에 있다. 實際로 中共의 이러한 接近方法 乃至 美對外政策決定에 대한 觀念은 美國內外 越南戰

反對運動에 의한 議會 및 政府에 대한 國民들의 壓力이 상당히 美國의 對外政策變更에 影響을 미쳤다고 하는 點에서 注意할 必要가 있다. 한편 蘇聯은 이미 制度化 乃至 安定된 社會로 多分히 官僚支配의 性格을 띠을 뿐만 아니라 軍縮問題등 美國과 解決中心 議案問題들이 高度의 技術的이며 專門的인 問題들이기 때문에 美國의 輿論이나 議會보다는 行政府의 役割을 重視하는 것 같다. 더우기 美 蘇關係는 美國의 絶對的 라이벌은 蘇聯이며 東歐에 있어서 蘇聯軍 進駐에 의한 共產化 및 유대인들에 대한 人種差別등으로 인하여 美國의 輿論이나 議會에 接近해 보았자 變반 좋은 反應을 期待할 수 없게 되어 있다. 美國本土를 強打할 수 있는 武器의 保有, 바로 美國의 코앞에 있는 キュー바에 미사일을 供給함으로써 惹起된 1962年의 미사일 危機, 中東에서의 이스라엘의 敵對國들에 대한 武器의 供給등은 슬레진저 報告書가 指摘하고 있는바와 같이 中共은 大陸間彈道誘導彈을 아직 所有치 않을 뿐만 아니라 最近에 그 開發을 늦춘 點으로 미루어 美國에 대하여 별로 威脅的인 存在가 못된다는 點을 감안할 때 美國의 公敵1号은 蘇聯이며, 따라서 蘇聯에 대한 美國民의 一般態度는 매우 敵對的인 수밖에 없는 것이다. 對外政策決定에 있어서 輿論의 役割에 대한 美學者들의 一般의 見解는 그동안 輿論에 대하여 상당히 過小評價되어 온 感이 적지 않다.<sup>27)</sup> 그러나 워터게이트事件 以後 美國政治에 있어서의 議회의 發言權 強化는 적어도 當分間은 持續되리라 予測되며 이 點에서 우리는 留意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 6) 日本의 政策

韓半島와 關聯된 日本政策의 重要한 變數는 現在로는 安保와 經濟, 이 두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 닉슨의 「광」 宣言以後 닉슨의 北京訪問에 앞서 먼저 사또가 北京을 訪問한 것이라든가 蘇聯과의 提檔프를 強力히 推進한 것이든가 最近의 兩北韓 等距離外交를 推進해오고 있는 것등 모든 一聯의 日本의 움직임은 安保와 經濟에 直結된 것이다. 即 日本은 軍事의意味인 勢力均衡面에 있어서 東北亞의 現狀이 維持되고 經濟的으로는 中共, 蘇聯, 北韓과의 交易를 擴大하기를 願하고 있다. 即 安保面에서 日本은 自體防禦의 能力이 없기 때문에 大韓民國이 계속 大陸共產勢力의 바람막이로서 남아 있어 주기를 願하는 一方, 中共, 蘇聯, 北韓으로부터의 敵對行爲를 最小化하기를 試圖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日本의 對亞細亞政策은 「現狀固定下의 提檔프」 推進이라고 간단히 規定할 수 있다. 現在 日本은 安保와 經濟 兩面에서 極度로 美國에 依存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상당한 期間 계속해서 依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日本의 對極東政策은 거의 美國의 對極東政策에 의하여 左右된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 정도로 美國에 從屬되어 있으며 日本 스스로가 極東에 있어서의 情勢變化를 가져올 獨自의인 對外政策을 樹立할 能力이 欠如되어 있다. 이 점에서 볼 때 韓半島의 平和定着은 美, 日, 中, 蘇 四強이 아니라 美, 中, 蘇 三強에 依存한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日本이 安保와 經濟面에서 完全히 美國에 依存하고 있고 또한

依存할 수 밖에 없는 理由는 다음과 같다.

우선 安保의 側面에서 보면 日本이 스스로 安保問題를 解決하려던 核武器에 의한 再武裝을 하여야 하는데 予算도 予算이러니와<sup>28)</sup> 再武裝에는 自民党政權의 存立을 걸어야 할 国内政治上의 難關이 있다. 29) 韓國에서 美軍이 撤収할 경우 自民党政權으로서는 安保의 理由를 들어 核武裝을 試圖할 強力한 口實은 얻게 되나 이 경우에도 問題는 간단하지 않다. 왜냐하면 核武裝을 反對하는 論議에는 日本의 협소한 地形때문에 核武裝은 日本의 安保에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中共과 蘇聯에 대하여 敵對視만 당할 可能性을 높이게 될 것이라는 主張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日本으로서는 美國의 核兩傘下에 계속 머무르면서 美國에 依存하는 것이 最善의 方策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30)

다음에 經濟的인 側面에서도 日本은 美國에 거의 依存하고 있다 시피 하고 있다. 即 日本의 每年 總對外交交易量의 三分之一은 美國을 相對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點에서 美國은 日本의 主要 商品市場이자 原料의 供給線이 된다. 31) 日本처럼 부지런히 海外을 相對로 物品이 오고가야만 經濟가 維持되는 經濟體制에 있어서는 美國은 必須的인 存在이다.

한편 日本의 中共과 蘇聯과의 交易狀態를 보면 政經分離主義에 의한 不斷한 努力에도 不拘하고 中共 및 蘇聯과의 交易이 全体 日本의 交易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극히 적다. 中共의 경우는 每年 增加하고 있으나 1973年の 実績을 볼때 日本의 總交易量

의 2.6%, 蘇聯의 경우는 2%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이것은 韓國 및 台灣과의 交易量에 比較할 때 훨씬 뒤지는 額數이다. 32)

中共 및 蘇聯과의 交易에서 对照를 이루는 점은 日本은 中共과의 交易에서 輸出超過를 이루고 있는 反面에 蘇聯과의 그것에서는 輸入超過를 이루고 있다는 事實이다. 이것은 앞으로 中共이 蘇聯보다는 日本의 市場으로서의 可能性이 더욱 큼을 示唆해 준다.

蘇聯과의 시베리아 共同開發이 장벽에 부딪친 反面에 中東의 原油보다 오히려 약간 價格이 낮은 中共의 原油는 最近 日本이 中共에 보다더 接近하는 하나의 重要原因이 되고 있다. 中共은 1959년에 하르빈 근처에서 大慶油田을 發見한 後에 계속 大陸棚의 開發로 勝利 大康油田등을 發見하여 產油國으로서의 상당한 潛在力을 가진 것으로 認定되었다. 昨年에 中共은 6,000 萬屯의 原油를 生産하였으며 그중 400 萬屯을 日本에 輸出하여 約 4 億弗의 收入을 올렸다. 33)

日·中原油輸入委員會의 最近 發表에 의하면 1959 年에도 日本은 5,800 萬바렐을 輸入하기로 中共과 契約이 이루어졌는데 이로 인한 日本이 中共에 支払할 金額은 約 6 億弗이다. 34) 現在 日本이 每年 蘇聯으로부터 輸入하는 原油는 約 200 萬屯 가량인데 中共은 日本에 대하여 原油輸出量을 蘇聯보다 훨씬 높혀 줌으로써 日本이 蘇聯에 接近하는 것을 막으려 하는 意圖가 分明하다. 現在 中共이 日本에 供給하는 原油는 日本의 全需要의 3%에 不過 하나 85%를 中東에 依存하고 있는 日本으로서는 너무도 지나치게

中東에만 치우친 依存性에서 脫皮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은 當然하다고 하겠다.

中共의 原油供給 以外에도 日本으로서는 蘇聯보다 中共에 더욱 接近하는 듯한 印象을 주어야 할 理由는 또 있다. 그것은 아직 까지 北海 四島의 領土權問題가 解決안된 채 蘇聯의 占領下에 있으며 蘇聯의 極東艦隊는 往往 日本漁船들의 作業을 妨害할 뿐 아니라 日本의 安保에 커다란 威脅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總選舉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日本 自民黨 人氣의 繼統的인 退潮는 美·日間의 軍事, 經濟, 外交 協力面에 있어서 重大한 威脅으로 나타나고 있다. 相對的으로 駐韓美軍의 戰略的 比重은 日本의 安保라는 面에서도 上昇되기는 하였지만 앞으로 美·日 韓·日 協力關係는 從前에 비해 많은 차질을 가져올 可能性이 增大된 것이다.

아직 日本이 脫美國現象을 나타낼 可能性은 稀薄하지만 社會黨勢力의 伸張과 아울러 對中共 接近이 增加될 것이고 보다 獨自路線이 追求될 소지가 많다고 하겠다.

## 7.) 中·蘇關係

中共과 蘇聯의 對韓半島政策에 크게 作用하고 있는 또하나의 要因은 中·蘇關係이다. 中·蘇紛爭의 原因과 動機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解釋이 있으나<sup>35)</sup> 여기서는 이들 解釋들에 대한 說明을 略하고 對立의 深刻性에 대해서 간단히 言及하고 앞으로의

發展樣相에 關聯해서 살펴 보기로 한다.

現在の 中·蘇關係는 우수리地域에서 衝突이 發生한 1969年 事  
態처럼 긴박하지는 않으나 相互間의 非難을 계속하고 있고<sup>36)</sup> 蘇聯  
側의 最近의 和解를 위한 제스추어에도 不拘하고 심사리 和解를  
이를 展望이 보이지 않는다. 世界 最長의 國境線으로 對峙하고  
있는 兩國은 主戰兵力과 火器를 國境線에 配置하고 있으며<sup>37)</sup> 中共  
은 2월에 蘇聯으로부터의 小麥 輸入하기로 하였던 80萬屯을 取消  
하였다.<sup>38)</sup> 中·蘇關係에 作用할 主要變數는 大略 다음의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 相互不信의 程度

나. 民族主義

다. 國內政治의 不安定의 程度

라. 美國과의 關係

相互不信의 程度는 相對方의 意思에 대한 不確實性에서도 惹起되  
지만 過去의 經驗과도 密接한 關聯을 가진다. 또한 理念的要素와  
關聯하여 이미 言及하였듯이 람시즘-레닌이즘 自体에 內包된 多角  
的 解釈의 餘地에서도 發生한다고 볼 수 있다.

民族主義는 國家利益 優先이나 아니면 社會國家間의 團結. 다시  
말해서 國際主義를 優先할 것인가의 問題와도 關聯되는데 結局은  
現實問題에서 惹起되는 것이다. 國內政治의 不安定 程度와 中·蘇  
關係와의 關係는 소위 國內政治와 國際政治의 連結理論(linkage  
theory)에서 잘 說明되고 있다. 即, 國內政治가 不安定할 때

內的團結을 위해서는 外部와의 緊張造成이 必要하다고 보는 觀點인 데 外部와의 緊張은 바로 隣接國家와의 紛爭이 있을 때 가장 크 기 마련인 것이다 .

1969年의 中·蘇國境紛爭을 中共과 蘇聯과의 國內政治와 連結하여 說明한 T.W.Robinson의 觀察은<sup>39)</sup> 상당한 說得力이 있다고 믿어진다 .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體制 自体가 外部와의 緊張造成을 감당할 수 있는 充分한 能力이 있을 뿐만 아니라 外部와의 緊張造成을 體制確立에 利用할 수 있는 能力이 있을 경우에 限하는 것이지 現在처럼 體制構築 自体에 問題가 있을 경우는 오히려 對外的 緊張造成을 積極 회피하게 되는 것이다 .

다음에 美國과의 關係는 中共의 立場으로는 美·蘇關係, 蘇聯으로서는 美·中共關係의 進展을 意味한다 .

앞으로의 中·蘇關係는 다음 세가지 중에 하나의 樣相을 띠을 것이다 .

a. 和解

b. 惡化

c. 現在狀況의 지속

以上の 세가지의 狀況發展에 있어서 세번째의 것 即, 現在狀況이 지속될 可能性이 가장 크다고 보여진다 . 그 主要理由는

첫째, 華體制가 當面하고 있는 內部的 問題의 深刻性때문에 關心을 外部로 分散시켜 對外政策의 變化를 追求할 餘裕가 없으며 특히 文革派를 회유하기 위해서도 毛沢東의 對外政策을 견지할 수

밖에 없다는 點.

둘째, 인도차이나에서의 美軍撤収로 말미암아 美國은 中共의 安保를 直接的으로 威脅하는 勢力이 아니라는 認識을 中共은 하는 反面에 蘇聯은 세계에서 가장 긴 國境線으로 隣接해 있는 地政學的인 位置로 말미암아 中共의 安保를 威脅하는 勢力이라는 點.

셋째, 中·蘇間의 不信은 그 뿌리가 깊으며 특히 中國人은 흔히 古典이나 故事를 들먹이는 만큼 過去에 대한 記憶과 歷史意識이 強해 그 不信은 쉽사리 払式하기 어렵다는 點.

네째, 中共은 蘇聯에 대한 接近에서 얻는 利益보다 美國이나 日本 兩方에 대한 接近으로 經濟交流, 技術導入 등에서 더 큰 利益을 얻을 수 있다는 點.

다섯째, 美·蘇에 비하면 質, 量面에서 월등히 뒤지나 그동안 開發한 中共의 核武器 및 그 運搬手段은 蘇聯의 壓力에 대하여 상당한 牽制力을 가지고 있다는 點.

여섯째, 美國은 中共의 蘇聯과의 和解를 願치 않았기 때문에 中共이 蘇聯에 接近할 경우 이를 抑制하는 政策을 펼 것이라는 點.

일곱째, 中·蘇和解의 先決條件이 되는 國境會談은 過去 帝政러시아에 의하여 併합된 中共領土의 返還등 實際로 解決되기에는 어려운 點들이 介在되 있다는 點 등이다.

以上과 같은 理由로 해서 中·蘇對立은 앞으로도 상당한 期間동안 持續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8)北韓의 態度

中共과 蘇聯의 對韓半島政策에 作用하는 北韓의 態度는 主로 北韓의 中共 및 蘇聯에의 依存度에 의하여 左右된다고 볼 수 있다. 두나라에 대한 北韓의 依存은 物質的 援助와 精神的 援助로 크게 나눌 수 있다. 物質的 援助란 軍事援助와 經濟援助를 말하며 精神的 援助란 理念과 体制의 類似性에서 오는 共同意識과 外交的 支援같은 것을 包含한다. 이렇게 본다면 北韓은 精神的인 面에서는 蘇聯보다는 中共에, 物質的인 面에는 中共보다 蘇聯에 더 依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北韓이 中共에 蘇聯보다 더 精神的 依存을 하고 있는 理由는 中國과의 歷史的, 文化的, 人種的, 地理的 密接性, 教條主義的 要素, 一人獨裁性, 유엔 및 後進國들에 대한 外交에 있어서 中共의 後見者的 役割때문이다.

한편 北韓은 物質面에 있어서는 蘇聯에 보다 더 依存하고 있는 데 그 理由는 蘇聯으로부터의 軍事, 經濟, 技術援助는 北韓의 經濟 發展 및 國防을 위해서는 必須的이기 때문이다. 1945年度부터 1960年 上의에 北韓은 蘇聯으로부터 約 7億弗 가량의 援助를 받았는데 이것은 同期間 北韓이 外部로부터 받은 全體 援助의 47%에 該當한다.<sup>40)</sup> 1962~1964年의 蘇聯과의 關係惡化로 因한 蘇聯으로부터의 援助의 中斷은 7個年計劃 期間中 北韓經濟의 沈滯 原因이 되었으며 다시 親蘇政策을 取함으로서 7個年計劃을 延長할 수 있었다.



北韓의 經濟는 아직까지 機械類 및 플랜트 建設을 輸入에 依存하고 있으며 蘇聯이 가장 많이 經濟援助, 無償援助 그리고 長期借款의 形式으로 資本財를 마련하여 주고 있으므로 中共과의 理念的 接近에도 不拘하고 아직까지 蘇聯으로부터의 援助와 輸入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는 實情이다. 41) 1969年度 北韓의 交易關係를 보면 總輸入額의 51.8%가 蘇聯으로부터, 그리고 總輸出額의 41.3%가 蘇聯과 이루어진 것이다. 即 北韓의 總交易量의 47.1%가 蘇聯과 이루어졌다. 42) 앞으로 北韓은 軍事, 交易, 技術 그리고 援助面에서 계속 中共보다는 蘇聯에 依存할 수 밖에 없음을 確實하며 이 점을 利用, 蘇聯은 北韓이 中共에 密着하는 것을 抑制하고 있다. 특히 韓國이 經濟面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 수록 物質的 支援의 가장 큰 源泉이 되고 있는 蘇聯으로부터 離脫키가 어렵게 된다.

### 9) 後進地域과의 關係

中共 및 蘇聯이 後進地域과 가지고 있는 關係가 對韓半島政策에 作用하는 理由는 韓半島도 後進地域이니 만치 中共과 蘇聯의 後進國에 대한 一般觀念이나 交渉樣相이 韓半島에 대해서도 適用될 수 있으리라는 點 때문이다. 그러면 對後進國과의 關係에 있어서 어떠한 一般行爲樣式이 있는가를 살펴 보자.

우선 結論부터 말하면 後進國과의 關係에 關한 限 中共 蘇聯 共히 一定한 行爲樣式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証拠로 中共의

對後進國 行爲樣式을 보면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임을 알 수 있다 .

- a. 鬭爭을 통한 革命的 權力掌握의 鼓吹<sup>43)</sup>
- b. 이슈 中心의 煽動<sup>44)</sup>
- c. 中共도 같은 後進地域이라는 點에 대한 強調와 相互援助 및 交易을 強調<sup>45)</sup>
- d. 文化革命 및 "文化外交"의 強調<sup>46)</sup>
- e. "人民戰爭", "民族解放戰爭", "持久戰" 등에 대한 理論 提供 및 遊擊戰 支援<sup>47)</sup>
- f. 中立, 非同盟, 平和共存의 操作<sup>48)</sup>
- g. 自助 自立의 強調<sup>49)</sup>

以上으로 볼 때 中共의 對後進國 行爲樣式은 상당히 流動的이면 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相互 矛盾되는 點이 많다. <sup>50)</sup> 이와같은 點은 蘇聯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sup>61)</sup> 結局 後進國과의 關係는 경우에 따라서 그 具體的인 內容이 다르며 이 點에서 어느 一定한 樣式을 對韓半島政策에 適用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도 大体로 中共이 蘇聯보다 理念的인 面에서 後進地域에 더욱 呼訴力을 갖는 理由는 같은 後進性이라는 要素때문인 것 같다. 後進國의 立場에서 中共 및 蘇聯에 대한 關係의 作用 變數는 北韓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精神的 支援과 物質的 支援으로 要約할 수가 있을 것이다 .

## 10) 歐洲와의 關係

西歐陣營과의 接觸 및 提議의 推進內容 또한 中共과 蘇聯의 對韓半島政策에 影響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卽 西歐陣營과의 關係는 中共과 蘇聯의 世界戰略에 影響을 주며 世界戰略에 있어서 韓半島問題가 갖는 比重을 決定하는데 使用하는 것이다. 앞에서 言及하였지만 蘇聯의 西歐와의 隣接性은 西歐와의 接觸을 活潑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安保面에 있어서 比較的 서쪽을 동쪽보다 重要視하게 만들며 한편 中共은 아직까지 地域性을 完全히 脫皮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亞細亞에 力點을 두는 感이 없지 않다. 時間이 가면 結局은 亞細亞의 弱小國들은 자기네의 影響圈에 들어오리라고 믿는 傳統的觀念을 中共이 갖는 理由도 蘇聯보다 亞細亞에 있어서의 地域性의 優位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

## 11) 共産國과의 關係

中共과 蘇聯을 對外政策에 있어서 어느 形態로 묶어 놓은 要因中에 하나는 다른 共産國들이다. 특히 共産圈內의 國際主義乃至 박시즘-레닌이즘을 遵守해야 된다는 共産主義의 道德意識은 各者의 自由로운 行動에 대해서 좋지 보면 指針, 나쁘게 보면 制約이 되고 있다. 共産圈內部的 強力한 連繫意識은 國際政治構造에 있어서 兩極體制가 무너져 감으로써 內容에 상당한 變化를 일으키고 있지만 적어도 共産主義의 拋棄를 公式的으로 宣言하지 않는

限 中共과 蘇聯의 對韓半島政策에 있어서 北韓을 支援해야 된다는 名分으로 壓力을 줄것임에는 틀림없다.

以上으로 中共과 蘇聯의 對韓半島政策에 作用을 主要因子 및 그 變數들을 全般的으로 훑어 보았는데 그중 直接的으로 韓半島政策에 影響을 주는 것은 1)에서 8)까지이고 一般後進國과의 關係 歐洲 國家들과의 關係 그리고 다른 共產國들과의 關係는 間接的으로 影響을 줄 因子들로서 앞의 여덟가지 因子들 보다는 훨씬 比重이 낮은 因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와같은 諸因子와 變數들은 韓半島에 있어서의 平和定着에 如何히 作用하는가를 考察하자.

### 三. 中·蘇의 作用要因과 韓半島平和定着問題

以上에서 指摘한 中共과 蘇聯의 對韓半島政策에 作用하는 因子들과 變數들을 平和定着이라는 側面과 縮付시킬 때 다음 세가지 範疇로 나눌 수가 있다. 卽, 1) 比較的 否定的으로 作用하는 要因들, 2) 肯定的으로 作用하는 要因들, 3) 否定的으로 作用할 수도 있고 肯定的으로도 作用할 수 있는 要因들이 바로 그것이다.

#### 1) 否定的으로 作用하는 要因들

- 가. 中·蘇에 있어서 紅( Red )의 要素
- 나. 中共 및 蘇聯의 軍事的力량의 增加
- 다. 中共에 있어서 毛路線의 維持
- 라. 中共과 蘇聯에 있어서 經濟的力량의 增大
- 마. 美國內에서의 駐韓美軍撤收 輿論
- 바. 中共 및 蘇聯에 대한 日本의 經濟的 接近
- 사. 後進國에 대한 中共 影響力의 增大
- 아. 다른 共產國과의 關係

#### 2) 肯定的으로 作用하는 要因들

- 가. 中共과 蘇聯에 있어서의 專( expert )의 要素
- 나. 繼承問題에 따른 內部的 갈등
- 다. 韓國基地가 美國의 世界戰略에서 갖는 比重

라. 中·蘇 對立

마. 日本의 安保問題

바. 北韓의 中共 및 蘇聯에의 依存性

### 3) 兩面으로 作用하는 要因들

가. 國民들의 一般분위기

나. 民族主義

다. 歐州國家들과의 關係改善

그러면 1) 과 2) 라는 要因들, 다시 말해서 韓半島에 있어서의 平和定着에 否定的인 要素들과 肯定的인 要素間에 어느쪽이 더 強한가를 檢討하자.

그에 앞서서 여기서 말하는 平和定着이란 序論에서 指摘하였듯이 상당한 時日동안의 現狀固定 乃至 現狀維持를 거쳐 漸次的으로 平和的 南北統一에 移行하는 분위기 造成을 뜻한다는 것을 再言하는 바이다.

역시 序論에서 指摘하였듯이 各要因 및 變數의 物量的測定이 不可能하므로 여기서 行하는 否定的 要因과 肯定的 要因의 比較는 主觀的이라는 批判을 면키 어려우나 現在는 勿論 앞으로도 當分間은 肯定的 要因側이 否定的 要因側 보다는 優勢하다고 보여진다. 即, 적어도 當分間은 中共과 蘇聯의 對韓半島 作用變數는 現狀固定 乃至 現狀維持의 南北關係, 다시 말해서 南北間의 緊張 가운데 平和의 持續을 바라는 方向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것은 韓半島에 있어서 戰爭可能性을 전혀 排除하는 것은 아니다. 뒤에言及하겠지만 이와같은 客觀的 條件에도 不拘하고 情勢誤判에 의한 金日成의 戰爭挑發可能性은 存在하고 있다.

그러면 다시 本論에 되돌아와서 왜 現狀維持의 要素가 現狀打破 要因보다 現在로서는 強한가를 說明하겠다.

우선 南北韓의 現狀固定에 否定的으로 作用하는 中共·蘇聯의 變數들을 보면 하나도 絶對적으로 強力히 作用할만한 것이 없다. 北韓의 韓國赤化를 支援할 紅의 立場은 中共에서는 江青등의 去勢에 의하여 일단은 커다란 打撃을 받았으며 專의 勢力이 強한 蘇聯에 의하여 牽制되는 것이다. 中共 및 蘇聯의 軍事의 力量의 增大는 韓半島에 있어서의 現狀打破라는 目標에 步調가 맞지 않는 限 意味가 적다. 卽, 中·蘇對立이 持續하는 限 軍事的 力量의 增大는 中·蘇 相互間의 牽制에 一次的으로 그 効用성을 갖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어느 一方도 美國의 軍事的 力量을 圧倒할 位置에 있지도 못하고 앞으로는 圧倒할 展望은 보이지 않는다.

中共에 있어서 毛沢東思想 또한 毛의 死亡과 아울러 時間이 갈수록 漸次 衰退해 갈 것이다. 勿論 어떠한 勢力에 의하여 中共의 權力體制가 構築되더라도 그들은 자기들만이 毛路線의 正統을 實踐하고 있다고 主張하겠지만 實際에 있어서 中共의 革命의 第1 世代는 終言을 고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며 專의 要素가 계속 強化되는 것은 革命後 어느 정도 세월이 잠으로 해서 抬頭되는

普遍的인 現象이기도 한 것이다.

中·蘇의 經濟의 力量의 增大로 軍事의 力量의 增大와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中·蘇의 經濟의 力量은 아직까지 總國民生産高에서 美國에 훨씬 뒤떨어져 있고 中·蘇 共히 食糧問題에 있어서 美國의 도움을 받아야 될 形便인 것이다. 年間 國民所得 140 弗 未滿의 中共으로서는 對北韓經濟 및 軍事援助에 인색해지지 않을 수 없다.

한편 美國內에서의 駐韓美軍의 撤収 및 對韓援助削減輿論<sup>2)</sup>은 안도차이나 事態 以後 大幅 減少되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現狀은 無限히 持續되리라고는 볼 수 없으며 언제나 韓國에 不利한 輿論이 抬頭할런지 알 수 없으므로 流動性이 많다고 보고 對策을 講究하지 않으면 안된다.

中共 및 蘇聯에 대한 日本의 經濟的 接近은 前章에서도 指摘했듯이 限界性을 內包하고 있다. 더우기 日本의 安保라는 側面때문에 비록 自民黨 勢力이 많이 衰退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설령 中共과 蘇聯이 상당한 經濟的 利權을 日本에 賦與하더라도 經濟的 利害때문에 美國의 意思에 背馳되는 行跡을 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더우기 現在 日本이 가지고 있는 美國에의 經濟的 依存度는 日本의 中·蘇에 대한 恣恣의 經濟接近을 強力히 牽制케 될 것이다.

後進國에 있어서의 中共 影響力의 增大는 韓國의 國際的 地位에 미치는 影響面에서 볼 때 심각한 問題이기는 하나 韓半島에 있어서 現狀維持를 깨는 直接的인 要因은 되지 못한다.



다른 共產國과의 關係 역시 마찬가지이다. 最上에 있어서 北韓에 대한 中·蘇의 支援을 돕는 役割 정도나 하게 될것이다. 이처럼 否定的 因子들의 內容이 弱한 反面에 肯定的으로 作用하는 變數들은 그 內容이 뚜렷하거나 個中에는 最近에 더욱 強化되었다. 即, 韓國基地가 美國의 世界戰略에서 갖는 比重은 1975年 2월에 議會에 提出된 슬레진저 國防長官의 報告書에서 明白히 指摘된바와 같이 인도차이나事變 以後 大幅 增大되었으며 議會 및 言論界에서도 그 妥当性を 認定하고 있으며 日本 自民黨의 人氣衰退로 말미암은 政局不安定은 日本의 安保를 위해서도 韓國安保의 重要性이 增大되게 만들고 있다.

毛의 繼承에 따른 中共內部에 있어서의 진통은 앞에서 比較的 많이 言及하였거니와 蘇聯에 있어서 最高指導者의 繼承問題도 아직까지 그 後繼者가 決定되지 못한데다가 브레즈네프의 健康이 좋지 않으므로해서 조만간 重大한 問題點으로 浮刻될 可能性이 크다.

蘇聯의 경우 現在 公式上 第2人者는 黨書記長인 안드레이 키리렌코(68세)인데 그도 역시 健康이 좋지 않다. 뿐만 아니라 蘇聯에서도 指導層이 갖고 있는 고민은 모두들 너무 高齡이라는 點이다. 蘇聯의 경우도 現在 15名의 黨政治局員들의 平均年齡은 65세로서 最低齡者가 57세이다.<sup>53)</sup> 共產體制에 있어서의 繼承問題는 重大한 政治的인 問題로서 다른 國內問題에 波及되는 影響은 매우 크다. 그리하여 이와같은 重大問題를 바로 눈앞에 두고 또 하나의 두통거리가 될 韓半島에 있어서의 紛爭惹起를 助長할 可能

성은 많이 削減되는 것이다.

中·蘇對立이 앞으로도 상당한 時日에 걸쳐 持續될 수 밖에 없는 理由는 앞에서 이미 言及되었으므로 省略하겠고 北傀의 中·蘇에의 依存性이 原則的으로 北傀의 獨自의 紛爭惹起에 制動을 걸 것은 自明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韓半島 平和定着에 否定的으로도 作用하고 肯定的으로도 作用하는 要因들에 대해서 簡略히 說明할 必要를 느낀다.

우선 中共 및 蘇聯 國民들의 一般분위기는 勿論 政府에서 掌握하고 있는 매스콤에 의하여 歪曲 操作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自然發生的으로 파악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實例로 中共의 文革期間동안 일어났던 분위기는 政府에 의하여 統制되었던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그때 그때의 理由에 따라 韓半島에 있어서의 現狀固定 或은 現狀打破를 顯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분위기는 外部로부터의 어떠한 重大한 쇼크가 오기 前에는 일어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民族主義 또한 마찬가지이다. 民族主義란 원래 自國民의 利益 또는 防禦라는 心理的 定向과 關係되는 것으로 具體的인 이슈에 따라 그 內容이 決定되는 것이다. 狀況에 따라 中共과 蘇聯은 自身の 國家利益을 追求하기 위하여 韓國에 有利한 行動을 取하기도 한다. 그 典型的인 例는 바로 中·蘇對立이다.

歐州國家들과의 關係改善이 韓國에 有利할 수 있는 例로는 韓國이 中·蘇에 接近할 수 있는 手段을 얻게 된다는 것을 들 수 있고

不利할 例로는 어떤 歐洲國家가 中共에 密着할 경우 韓國은 하나  
의 支持者를 잃게 된다는 事實이 그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中·蘇의 對韓半島 作用變數를 平和定着에 否定  
的인 것과 肯定的인 것으로 나누어 比較함으로써 現在로서는 肯定  
的인 것이 優勢하다는 判斷을 얻었다. 그러나 諸變數들은 대개  
固定的인 것이 아니라 可變的이라는 問題가 있다. 따라서 지금  
부터는 比較的 可變性이 높은 因子 및 變數들을 찾아내어 우리로  
서 여하히 平和定着에 誘導할 수 있겠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 四. 可變性이 높은 作用變數들

一國의 外交政策은 內的環境(內的因子)과 外的環境(外的因子)의 變化에 대한 適應行爲(adaptive behavior)라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로즈노(Jawes N. Rosenau)教授는 內的環境과 外的環境의 變化程度의 크고 적함에 따라 圖表1이 보여주듯이 外交政策에 있어서 네가지 類型을 想定하였다. 54)

로즈노教授의 이와같은 区分은 아직까지 試案으로서 充分히 開發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內容이 不透明하기는 하나 各 경우의 理解를 위하여 든 例는 다음과 같다. 55)

圖表 1. 環境變數와 適應

		外 的 變 化	
		大	小
內 的 變 化	大	(I) 震動的 (Convulsive)	(III) 活氣的 (spirited)
	小	(II) 慎重性 (deliberative)	(IV) 習慣性 (habitual)

(I) 震動的類型: 1960年代 後期(即 文革期間中)의 中共

(II) 慎重的類型: 第2次大戰 勃發에 따른 처음 1年間의 美國보  
다 最近것으로는 伯林封鎖, 韓國動亂 勃發에 따른  
美國의 行動을 例로 들 수 있다.

(III) 活氣的類型: 1930年代 獨逸의 外交政策

(IV) 習慣的類型: 1920年代 스위스의 外交政策

우리의 現在 位置를 以上の 네가지 類型에 비추어 보면 (II)의  
慎重的 適応에 該當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大体로 國際政治  
를 항상 이끌어가는 強大國의 立場으로서는 (III)의 狀況에 処하게  
되고 強大國의 조그만한 움직임에도 커다란 衝擊을 받게 되는 弱  
小國으로서는 (II)乃至 (I)의 狀況에 処하게 된다. 특히 (I)의 경  
우에는 로즈노教授가 指摘하였듯이 國內的 緊張이 따르게 된다.

로즈노는 어떻게 하나의 狀況에서 다른 狀況으로 移行하게 되는  
지를 分明히 하지 않았으나 筆者의 소견으로는 外部로부터 衝擊을  
많이 받는 弱小國의 경우에는 (II)에서 (I)로 移行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생각된다. 인도차이나事變은 美國으로 하여금 (III)에서  
(II)로 移行하게 만든 主要要因이 된것 같다.

그러면 本論으로 되돌아가서 2章에서 考察한 因子 및 變數들  
가운데 可變性이 높은 것을 推出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中·蘇 國民들의 분위기

2) 對外貿易에 의 依存度

3) 繼承問題

4) 日本의 經濟的 接近

5) 美國과의 關係

6) 北韓의 態度

7) 美國內의 輿論

8) 中·蘇對立

9) 後進國과의 關係

10) 歐洲와의 關係

以上의 變數들은 可變性이 높은 變數들로서 앞으로 韓半島 平和 定着에 作用할 外的環境의 內容을 決定하게 될것이다.

그러면 이와같은 可變性이 높은 因子들을 우리로서는 여하히 韓半島 平和定着에 有利한 方向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는가? 大體로 볼 때 우리가 取할 수 있는 行動半徑은 極히 制限되어 있음에 틀림없다. 卽 繼承問題같은 것은 우리로서는 介入할 餘地가 전혀 없으며 中·蘇對立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中共과 蘇聯의 비위를 露骨的으로 거슬리게 하는 行爲에 조심한다든지 (例컨데 漁船나포같은 것), 第3國을 통한 經的的 接近 (특히 中共과 蘇聯으로부터의 輸入에 관한 限 直接輸入의 避路 設置는 提案해 불만하다)을 試圖한다든지 그들이 말하는 「人民對人民」의 外交의 展開可能性등을 檢討해 볼 必要가 있을 것이다.

## 五 . 結 論

中·蘇의 對韓半島 作用變數는 現在 및 앞으로는 當分間은 現狀 維持를 必要로 하고 있다. 이것은 時間을 벌어야 할 우리의 立場으로서는 鼓舞的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中共과 蘇聯側의 作用變數가 갖는 意味이고 그렇다고 해서 金日成의 情勢誤判에 의한 南侵挑發의 可能性을 完全히 排除하는 것은 아니다. 卽 北傀가 一方的으로 戰爭을 挑發하고 그 事態進展이 中共이나 蘇聯으로 하여금 말려들지 않을 수 없을 경우가 바로 그것인데 이럴 경우 滿洲의 安保問題 때문에 蘇聯보다는 中共이 金日成에 대한 支援을 보다 積極的으로 될 可能性이 있다.

北韓이 一方的으로 戰爭을 惹起시킬 경우는 그들의 對南人民革命 戰略과 連結시켜 볼 때 다음과 같은 狀況이라고 말할 수 있다.

- 1) 大韓民國에 比하여 北韓의 軍事的 經濟的 力量이 월등히 優位일 때, 卽 北韓이라는 革命基地가 튼튼히 強化되었을 때 (自體의 革命力量強化)
- 2) 大韓民國에 있어서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不安定이 激化될 때 (南朝鮮人民革命力量 強化)
- 3) 美國 및 其他 世界輿論에 의하여 韓國이 國際적으로 孤立될 때 (國際革命力量의 強化)인데

以上の 3가지 것이 接連다면 金日成으로서는 더 이상 바랄바가 없을 것이다.

以上の 3 가지 경우 외에도 우리가 注意해야 할 또하나의 경우는 金日成의 이와같은 對南赤化戰略이 갑자기 장벽에 부닥쳐 좌절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날아 갈수록 그 實効性이 더욱 없어지리라는 確信을 갖게 될때에도 北傀는 戰爭挑発을 할 可能性이 있다는 點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경우보다는 위에 指摘한 세가지의 狀況이 보다 金日成으로 하여금 南侵挑発을 하게 만드는 誘因이 될 것이다.

中·蘇의 作用變數가 大体로 韓半島에 있어서의 現狀維持를 願하고 있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고 하는 것은 北韓이 戰爭 以外の 다른 對韓敵對行爲마저도 拋棄할 것을 中·蘇가 바라고 있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實際로 中·蘇는 北韓이 戰爭을 挑發하는 것만 合意 안할 뿐이지 韓國에 대한 다른 敵對的 行動에 대해서는 支援해 오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 支援할 것이다.

그 主要樣相은,

1) 北韓의 對南韓 間接侵略을 支援

中·蘇는 北韓이 韓國에 武裝間諜을 派遣하는 것을 反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게릴라戰을 惹起한다 해도 反對하지 않을 것이 確實하다.

2) 北韓에 대한 軍事, 經濟, 技術援助의 繼續

3) 韓國 孤立化를 위한 國際輿論 造成

등이다. 이와같은 行爲는 그 程度가 深化되면 韓半島 平和定着에 重大한 威脅이 될 수 있으며 바로 이 點이 金日成이가 情勢를



誤判할 수 있는 主要契機가 되지않나 생각된다.

中·蘇의 作用變數는 當分間은 우리의 意思와 상관없이도 極東에 있어서의 現狀維持를 追求하고 있다는 點에서는 多幸이나 長期的인 面에서는 平和定着을 반드시 保障하고 있는 많은 點에 問題가 있다. 뿐만 아니라 中·蘇의 作用變數는 그 性格上 우리가 介入해서 우리에게 有利하도록 誘導하기에는 너무나 制約이 많은 點에 問題는 더욱 커진다. 中共 및 蘇聯의 對韓半島政策 內容을 決定하는 가장 重要한 因子는 2章과 3章에서 考察한바대로 中·蘇對立이라는 因子와 美國의 政策이라는 因子, 다시 말해서 美-中-蘇 三角關係이므로 中·蘇의 作用變數에 대한 影響은 美國을 통한 間接的 方法에 주로 依存할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바로 이 點에서 美國과의 緊密한 關係의 계속 維持는 必須的이며 가장 現實的이다. 日本은 우리를 支援하기에는 微弱하나 日本에 대한 美國의 利害關係때문에 韓美關係의 계속 維持에 있어서 다리 役割은 할 수 있을 것이다.

結局 以上으로 볼 때 우리로서 取할 수 있는 韓半島 平和定着을 위한 最善의 方法은 北韓自體가 平和共存을 希望토록 만드는 方法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措置가 이루어져야 한다.

#### 1) 国力培養

可及的이면 北僞의 挑發에 대한 牽制力을 增強시키는 方法으로 核武器의 確保가 바람직하나 財政上 問題가 따른다.

## 2) 國民의 團結

## 3) 平和攻勢

平和攻勢의 主導權은 우리가 잡아야 한다. 南北對話는 계속되어야 하고 우리 體制의 基底가 威脅받지 않는 限度內에서 과감한 平和案을 提起할 必要가 있다. UN內이든 UN밖이든 南北間의 戰爭을 防止할 公式的인 國際的 平和保障機構 創設등을 摸索해야 한다.

## 4) 世界輿論의 誘導

韓國이 眞正한 平和愛護國이라는 印象을 줌은 勿論 과감한 體制內的改革으로 國民의 團結力을 과시할 必要가 있다.

## 5) 고식인 反共路線의 지양

以上과 같은 措施로 韓國의 國力 및 人氣가 北韓에 比하여 필등히 優位에 있게 될 때 中共과 蘇聯도 韓半島에 있어서의 平和定着은 그들의 國家利益에도 도움이 된다는 意識을 確實히 갖게 될 것이다.

〈 註 〉

(註 1) 여기서 "平和定着"이라는 어휘의 뜻을 明確히 해야 될 理由는 韓半島에 있어서 平和는 赤化統一이 될때에만 비로소 可能하다고 믿는 北韓側의 생각을 감안해서이다. 卽 平和에 대한 相異한 概念이 있음을 指摘코져 함인데 北韓式의 論理에 의하면 武力南侵은 韓半島의 平和定着을 위한 重要手段(아마도 가장 現實的인 手段)으로 看做될 수 있음에 注意할 必要가 있다.

(註 2) Michel Brecher et.al, "A Framework for Search on Foreign Policy Behavior",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XIII, No. 1 (March 1969) p. 80

(註 3) 卽 合理的 政策模型(Rational Policy Model), 組織體的 過程模型(Organizational Process Model), 官僚間政治模型(Bureaucratic Politics Model)이 그것인데 이들 세 模型에 대한 간단하면서도 明確한 解釋은 G.T.Allison, "Conceptual Models and the Cuban Missile Crisi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LXIII, No. 3 (September 1969), pp. 689-718 을 参照할 것.

(註 4) 兩者間의 差異를 指摘한 研究는 無數하나 Donald M. Lowe, The Function of "China" in Marx, Reviw, and Mao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66) 과 Donald

Treadgold(ed.), Soviet and Chinese Communism: Similarities and Differences(Seattle: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67)을 参照할 것.

(註 5) 兩者間的 差異점에 대한 좀더 자세한 分析을 위하여는 拙稿, 「北韓의 人民革命戰略의 對南韓適用可能性 診斷」, 國土統一院 1974.7月, pp.7-10을 参照할 것.

(註 6) Alexander Dallin, "Soviet Foreign Policy and Domestic Politics: A Framework for Analysis," in Eric P. Hoffmann and Frederic J. Floron, Jr.(eds.), The Conduct of Soviet Foreign Policy(Chicago: Aldine Publishing Co., 1971) p.45

(註 7) 一例로 W.H.Parker, The Superpowers: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Compared(London: Macmillan, 1972) pp.284-99 参照할 것.

(註 8) The New York Times, February 1, 1972 p.6

(註 9) 國土統一院編, 「蘇聯總覽」(서울: 國土統一院, 1974), (以下 「蘇聯總覽」이라 略稱함) p.453

(註 10) James Tobin, "The Economy of China", Current Scene, Vol. XII, No. 5(May 1974) 参照

(註 11) 林彪의 同演說의 內容은 Lin Piao, "Mao Tse-tung's Theory of People's War", in F.Schurmann and O.Schell(eds.) Communist China(London: Penguin Books,

1967), pp. 342-54

- (註 12) The New York Times, Feb. 6, 1972, Section 4, p. 2
- (註 13) Loc. cit
- (註 14) 駐韓美國公報院, 『美國의 아시아防衛政策』(술레진저國防長官의 議會에 提出한 國防報告書 - 拔萃文)(以下 「술레진저報告書」로 略稱), pp. 1-2. 그러나 最近의 外信報道에 의하면 中共은 이미 美國의 西海岸에 到達할 수 있는 ICBM을 保有하고 있다는 主張도 있다.
- (註 15) The New York Times, Feb. 1, 1972. p. 6
- (註 16) 「술레진저報告書」 pp. 1-2
- (註 17) "China's Foreign Trade," Current Scene, vol. XII No. 12(December 1974), p. 1
- (註 18) 자세한 것은 「蘇聯總覽」 p. 351 參照
- (註 19) 上記 "China's Foreign Trade" p. 7
- (註 20) 中共의 10大貿易對象國은 上掲書 "China Foreign Trade" p. 9에서 引用한 것이고 蘇聯의 10大貿易對象國은 「蘇聯總覽」 pp. 352-355에서 作成함. 但 루블 對 美貨 弗의 比率은 0.5 對 1의 換率을 適用하였음.
- (註 21) 「蘇聯總覽」 p. 351
- (註 22) "China's Foreign Trade", p. 7
- (註 23) G.T. Allison, op. cit.
- (註 24) 即 學者에 따라서는 蘇聯의 政治體制를 完全히 官僚主義

의 全体主義體制로 보는 見解도 있다. 例, Barrington  
moore, Jr. Soviet Politics: The Dilemma of Power  
(New York: Harper & Row, 1965) 와 S. Bialar, Soviet  
Political Elite: Concept, Sample, Case Study, Unpu-  
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1965. pp.23-58

(註 25) 文化革命期 中共外交의 考察에 대해서는 Ishwer C.  
Ojha, Chinese Foreign Policy in Age of Transition  
(Boston: Beacon Press, 1972) 參照

(註 26) The New York Times, Feb. 17, 1975.

(註 27) 一例로 G. Almond 教授는 美國의 政治體制의 民主主義制  
度라는 性格上 國民輿論이 對外政策에 影響을 줌을 看過해  
서는 안된다는 立場을 取하고 있다.

G. Almond, The American People and Foreign Policy  
(New York: Praeger, 1960) p. 53

(註 28) 一例로 美國內 12 個所에 配置된 A B M 의 經費만  
103 億弗이며 年間 運營費는 35 億弗이라고 대나마라國防長  
官은 議會에 報告하였다. 이것은 A B M 만 指摘한 것이  
니가 I R B M , I C B M 미사일搭載潛水艦, 戰略爆擊機 등 核  
武裝 및 그 維持에 드는 費用이 얼마나 막대할지는 가히  
推測이 되는 것이다. 村上薫, 「日本と アジア의 軍事情  
勢」(東京: 合同出版, 1971) p. 265 參照

(註 29) 1971년에 行한 核武装에 대한 日本의 輿論調査 內容은 다음과 같다.

核武装	反对	62 %
	賛成	14 %
모르겠다		12 %
無 答		12 %

上掲書 p.242 参照

(註 30) 金山政英, "日本外交의 基本姿勢," 朴在圭編, 「東亞細亞의 平和와 安保」(慶南大学 極東問題研究所, 1974) pp.198-99

(註 31) 日本通商産業省編, 昭和 49 年版 「通商白書」(各編)(東京:大藏省印刷局, 1974) 参照

(註 32) Loc.cit

(註 33) The New York Times, February 10, 1975.

(註 34) The New York Times, March 11, 1975.

(註 35) 例컨데 그중에 代表的인 것은 中·蘇紛爭을 유우라시아大陸에 中原을 차지한 兩大勢力間의 膨脹主義에서 오는 對立이라고 보는 見解(例, 歷史的背景과 關聯한 O.Edmund Clubb, China and Russia: The great gam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1 같은 것), 순수히 理論的인 對立에서 본 見解(宮本吉夫, 「中ソ論争の 概略と 批判」, 東京:日刊労働通信社, 1966 같은 것) 등이 있다.

理念對立에서 볼 경우 主要 이슈는 戰爭과 平和의 問題, 核兵器와 核戰爭, 平和共存의 問題, 教條主義 對 修正主義의 問題, 民主化와 自由化의 問題 등이다.

(註 36) 例컨대 프라우다誌는 今年 1月 中共의 第4期 人民代表會議에서 採択된 新憲法을 蘇聯에 對한 敵對行爲를 正當化하기 위한 것이라고 非難하고 있다. (N.Y.T, February 6, 1975 參照)

(註 37) 우수리 事態가 發生하기 直前 中共의 東北地域과 內蒙古 國境線地域에만, 50萬의 正規軍을 集結시켰고 蘇聯은 30萬으로 對峙하였다. Thomas W. Robinson, "The Sino-Soviet Border Dispute,"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LXVI, No. 4 (December 1972), p. 1187.

註 64 參照

이와같은 兵力配置가 계속 그대로 維持되고 있는 듯 하다.

(國土統一院, 「中共總覽」, 서울: 國土統一院, 1973, p. 449)

(註 38) N.Y.T., Feb. 2, 1975

(註 39) Robinson, op. cit.

(註 40) 市川正明, 「中ノ對立と 北韓의 經濟建設」, 山本登編, 「中ノ對立と アジア諸國」(下), (東京: 日本國際問題研究所 1971), p. 144. (市川正明, 1971, p. 144)

(註 41) Joseph S. Chung, "North Korea's International Trade", in Young C. Kim (ed.), Foreign Policies of



Korea (Washington, D.C.: The Institute for Asian Studies, 1973), pp. 89-90

(註 42) Ibid., p. 92

(註 43) "On The Proletarian Revolutionaries' Struggle to Seizure Power", Peking: Foreign Language Press, 1968.

註 44) J.S. Little, "Communist China's Use of Nationalism in Its Policies toward the Third world", Public policy, 1967 J.R. Fiszman, "The Appeal of Maoism in Pre-industrial Semicolonial Political Culture", Political Science Quarterly, March 1959. W. Hsu, "Diplomatic Use of Buddhism", in Buddhism in China, Hong Kong: Union Press, 1964.

(註 45) Y.L. Wu, "The Weapon of Trade" Problems of Communism, Jan-Feb. 1960; L. Tansky, "China's Foreign Aid: The Record", Current Scene, Sept. 1972) and J.S. Prybyla "Foreign Aid: The Chinese are Coming" Current History, 1971.

(註 46) E.L. Wheelwright and B Mac Farlane, "The Chinese Road to Socialism: Economics of the Chinese Cultural Revolution", Monthly Review, 1970.

(註 47) N.A. Simoniia, Peking and the National Liberation

Struggle, Novosti Press Agency Publishing House, 1970

T. Kataoka, "Communist Power in a war of National Liberation", World Politics, April 1972.

(註 48) A.M. Halpern, "Communist China and Peaceful Coexistence", The China Quarterly, July-Sept. 1960  
F. Michael, "Communist China and the Non-Committed Countries? Motives and Purposes of Communist China's Foreign Policy", in K. London (ed.), New Nations in a Divided World, New York: Praeger, 1963.

(註 49) P. Van Ness, "Mao Tse-tung and Revolutionary Self-Reliance", Problem of Communism, Jan-April 1971.

(註 50) 例컨대 越南戰에 있어서 말로만 革命云云 하면서도 支援은 하지 않고 있다고 指摘한 1967年의 北韓의 非難이 한 例이다..

(註 51) Jau F. Triska and David D. Finley, Soviet Foreign Policy (New York: The Macmillan Co., 1968), pp. 249-83

(註 52) 韓國에 대한 美國人들의 人氣가 얼마나 한때 낮았는가 는 1975年 3月末에 行해졌던 美國 시카고의 海外關係評議會 (Chicago Foreign Relations Council)의 輿論調査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設問： "다음과 같은 나라들이 外部로부터 侵略을 받았을 때 貴下  
 는 美軍介入을 贊成합니까, 反對합니까?"

對答：

<u>国 家 名</u>	<u>贊 成</u>	<u>反 對</u>
카나다	77	12
西歐國家들	39	41
西伯林	34	43
이스라엘	27	50
台 灣	17	59
韓 國	14	65
越 南	11	72

(朝日新聞 1975年4月24日字)

(註 53) The New York Times, Feb. 17, 1975. P. 21

(註 54) James N. Rosenau, "Foreign Policy as Adaptive  
 Behavior", Comparative Politics, vol. 2, No. 2, No. 3

(April 1970) pp. 365-387 圖表는 p. 379

(註 55) Ibid., pp. 379-81

1944